

# 아이들 돌봄 문제 해소 나서

### 남원시, 육아공동체 발굴 및 육성사업 추진 자연놀이 등 지역주민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남원시가 독박육아에 대한 부담과 고통을 해소하고 육아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돌봄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풀뿌리육아공동체의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2019년 '행복한 육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해에는 '행복

한 육아를 위한 엄마아빠의 자유시간' 공모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8개 육아공동체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12개 육아공동체를 선정해 6월~10월까지 5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목적은 만1세~9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품앗이 육아를 위한 다

양한 활동을 지원해 독박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육아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돌봄 문제를 지역공동체와 함께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은 크게 소규모 육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육아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사업, 육아공동체 발굴·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육아공동체활동 지원사업으로는 영유아 품앗이육아, 발달장애 가족공동체 활동, 모험놀이터 만들기, 육아용품 나눔터, 가족 치유프로그램, 자연놀이 등 다양한 색깔의 활동으로 진행되며, 특히, 육아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사업 2개소를 선정 아이들에게 부족한 놀이와 놀이터 문제, 농촌지역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육아공동체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지원사업으로는 12개 육아공동체의 공통적인 화두인 '육아 및 놀이공간'을 주제로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기획하여 놀이터디자인너 편해문 선생 특강을 개최했다.

한편 육아공동체 참가자들은 "아이들이 어른들과 집 근처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작은 공공놀이터와 다양한 생태놀이터와 모험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공간의 조성을 건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가 독박육아에 대한 부담과 고통을 해소하고 육아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돌봄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임실군, 생활SOC 복합화 추진 총력

### 임실읍 행복누리원 조성 통한 생활밀착형 맞춤형 사업

임실군이 생활밀착형 주민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생활SOC 복합화는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조정실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이며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사람중심)을 사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체육문화시설 군특보조를 상향조정, 낙후지역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 발굴 등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동안 군은 지난 2019년부터 사업 추진에 들어간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을 비롯, 임실을 행복누리원 조성, 오수면 행정복지센터, 임실 국민생활체육센터, 임실군 가족행복플러스센터를 발굴해 중앙부처 및 전북 도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지난 6월 발표된 '생활SOC 복합화 가이드라인'과 가배분 물량에 맞춰, 2020년 우선선정을 위해 '임실을 행복누리원(가칭)'에 중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6월 중순부터는 주에 1~2회씩 담당자 및 팀장회의 등을

열어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주민 맞춤형 시설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임실읍사무소 신축과 함께 주거지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 근린형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를 결합해 '임실을 행복누리원(가칭)'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에는 균형위에서 주최한 생활SOC 복합화 컨설팅에서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운영 방안 등 컨설팅 결과와 발전적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주 내로 사업계획안을 구체화해서 22일까지 확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생활SOC 복합화가 우리 지역의 오랜 현안을 해결할 것으로 크게 기대한다"며, "정부의 추진방향에 부응하고, 다수의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과 협력하는 등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30조원 정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복합화사업 선정을 위해 지자체 별로 사업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다.

임실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신규사업 발굴, 발굴보고회 개최, 추진단 및 자문단 구성을 완료했다.

재정능력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 순창군, 직업훈련교육비 지원

### 취·창업 관련분야 수강시 최대 100만원까지

순창군이 고등학생 취·창업 교육비 지원에 이어 대상범위를 일반인까지 확대해 취·창업을 돕는다.

군은 16일 군민들의 다양한 취·창업분야에 진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교육 수업을 희망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에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관련 분야 교육비 지원의 연장선으로, 취·창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 및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교육 습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군민들의 요구를 군이 받아들여 이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현재 순창군은 '농업용 드론 전문가 양성교육 지원사업'으로 드론 전문가 양성을 위해 관련 교육비를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에 교육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분야로 지원 분야를 넓혔다.

단,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 관련 교육은 지원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지역적 제한은 없다.

국비로 교육비를 지원받아 수강 중인 교육생은 교육비 대신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 외에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관련 교육의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자부담 50%)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연중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해 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로 현장 접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발생

### 야외활동 시 진드기 주의

남원시보건소는 관내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며 야외활동에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은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참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발생하며,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쯤쯤나무 시증과 달리 치료제가 없고 치사율이 매우 높으나, 진드기에 물려도 느낌이 거의 없고 물린 자국을 확인하기 어려워 조기진단이 어렵다

따라서 농작업 등 야외활동을 한 후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진드기 제거법(핀셋으로 비틀거나 회전하여 부서지지 않도록 천천히 제거)에 따라 직접 진드기를 제거하고 소독을 해야하며, 잠복기는 2주 정도로 감염병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풀숲 야외활동을 할 때는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나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귀 뒤에는 곧바로 꼼꼼히 씻고 착용했던 옷을 세탁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리산전북사무소, 공원관리 특별대책 마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조점현)는 여름 휴가철 탐방객 급증에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여름 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름 성수기는 8월 18일까지로 계속 내 안전시설 설치, 야경장 등 탐방객 이용시설정비 및 정화활동 등을 사전에 실시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계곡 내 취사, 야영, 불법 주차행위 등 다발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 발생 시 강력히 단속하고 위반행위자는 자연공원법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창순 자원보전과장은 "여름 성수기 기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를 유지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매아리

### 취학 전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 남원시보건소, 9월 20일까지 실시

남원시보건소는 취학 전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를 오는 9월 20일까지 관내의 유치원, 어린이집 등 33개소 1900여명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의 충치발생 빈도는 성인보다 높고 진행속도 빠르기 때문에 어린이 스스로 구강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잇솔질 교육이 필요해 실시하는 것으로,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 등의 예방처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남원시 보건소는 취학 전 어린이들의 충치예방을 위해 이달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등 33개소를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시정각 교육과, 불소바니쉬 도포, 올바른 잇솔질교육 및 어린이 구강 위생용품 배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 실내수영장, 어린이 회원 모집

순창군이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영교실 회원을 모집한다.

어린이 수영교실은 20명씩 총 40명을 2개반으로 나눠 운영하며,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순창군 실내수영장을 직접 방문하여 회원권을 발급받아 접수하면 된다.

월 이용요금은 초등학생 기준 3만 3천 원이고 별도의 강습료는 받지 않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063-650-1664)로 문의하면 된다.

강습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4주간(월·수·금 오후, 2개반 편성, 반별 10명만 모집) 합반 또는 폐강) 운영할 계획이며 물적응단계, 기본영양교육, 생존수영훈련 등을 전문수영강사가 직접 지도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교육

임실군은 16일 임실문화원에서 관내 사회복지사 8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실군 사회복지사협회(회장 권영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교육은 사회복지사 대상 법정보수교육이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사회복지현장에서 적용되는 최신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졌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교 교수와 나눔연구소 전성실대표의 강의는 참석한 사회복지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엔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